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4년 3월 28일 -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농업 노하우 멘토에게 배우세요” -6면	서귀포농업기술센터	한라일보
○	동부농기술센터, 로컬 식재료 메뉴 개발 교육-12면	동부농업기술센터	제주매일
○	[기고] 농업·농촌 자원의 공익적 가치 재조명-14면(이미숙)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뉴제주일보
○	나눔과 기부의 행복-14면	-	제주매일

(한라일보: 2024년 3월 28일)

○ “농업 노하우 멘토에게 배우세요” -6면

“농업 노하우 멘토에게 배우세요”

서귀포농기센터 실습교육

제주도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오는 4월부터 신규 농업인(연수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교육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신규 농업인과 선도 농업인간 1대 1 멘토링 사업으로 이뤄지며, 올해는 4팀이 참여해 5개월 동안 노지감귤, 한라봉, 레드향 등 5개 작목에 대한 멘토링을 진행한다.

선도 농업인은 작목 재배기술과 농업경영, 영농 정착 경험 및 노하우를 전수한다. 신규 농업인은 선도 농업인의 농장에서 다양한 현장 교육과 재배기술, 노하우를 전수받으며 농업 전반과 작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갖는다.

서귀포농업기술원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에 이주한 신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라일보 6**

(제주매일: 2024년 3월 28일)

○ 동부농기센터, 로컬 식재료 메뉴 개발 교육-12면



동부농기센터, 로컬 식재료 메뉴 개발 교육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승현)는 지난 26일 농촌생활교육관에서 농촌융복합사업자 등 30명을 대상으로 지역 농산물의 활용법을 알리고 건강한 음식 문화 확산 및 소비 확대를 도모하고자 ‘로컬 식재료 활용 메뉴 개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4월 16일까지 4회에 걸쳐 이론과 실습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제주매일 12**

(뉴제주일보: 2024년 3월 28일)

○ [기고] 농업·농촌 자원의 공익적 가치 재조명-14면

농업·농촌 자원의 공익적 가치 재조명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이란 농정 핵심 비전에는 스마트 농업과 미래 먹거리 창출 산업으로 농 식품산업을 키우는 한편 국민을 위한 삶 터·일터·쉼터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농 촌을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진정한 휴식과 함께 새로운 경험 및 추억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촌 여행 ‘촌캉스’가 재조명되면서 농업·농촌을 1차 산업에 국한하지 않고 공익적 가치 창출의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귀포농업기술센터도 2010년부터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촌융복합(농외소득) 활성화 사업장 조성, 관광 트렌드에 걸맞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진로체험 농장 조성을 통해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올해 신규 조성하는 농촌융복합 치유농장을 포함해 4개 분야 25개 사업장을 육



이미숙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장

성하고 있으며 사업자 역량 강화 컨설팅과 교육을 통한 경영 내실화, 새로운 상품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홍보·마케팅을 통한 소득 안정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또 최근 제주를 찾는 여행객들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치유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여행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건강 증진 및 회복을 돕는 치유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새 소득원으로 자리 잡도록 꾸준히 지원할 예정이다.

농촌융복합 산업의 영역을 제주형 치유농업 서비스로 확장해 농업과 복지를 아우르는 사회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농업·농촌 자원의 공익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제주 경제의 활성화에도 이바지해 나가고자 한다. 뉴제주일보 14

(제주매일: 2024년 3월 28일)

○ 나눔과 기부의 행복-14면

기고 나눔과 기부의 행복

前 (사)한국생활개선제주
시구좌읍회장



현인자

청룡의 해 갑진년이 시작되고 시간이 흘러 어느덧 3월이 끝나간다. 농촌에서는 봄의 기운을 받아 올 한 해의 농사가 시작됐다.

올해 농사를 잘 지어 대박 나길 바라는 희망을 품고 땅 속에서든 땅 위에서든 모두가 맡은 바 일에 열심이다.

오늘은 1년 전 나와 약속한 노력의 성과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나는 1년 전 올피커스 마켓에서 농산물을 판매해 발생한 수익을 장애인 시설에 기부했다.

나눔과 기부라는 소중한 자그마한 씨앗을 심은 것이다. 그 이후 씨앗이 자라 행복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현재까지 노력해 왔으며, 올해 '올바른 농부장'에 참여하고 그 수익금을 또 한 번 장애인 시설에 기부한 것으로 3.28을 맺었다.

제주매일 14장은 탄소중립을 위해 판매자

와 구매자 모두 일회용품이 아닌 장바구니 사용을 약속하고 농산물의 생산과 구입, 소비까지 제로웨이스트를 지향하고 있다. 이런 뜻깊은 장터에 참여해 수익금을 기부한 것은 열매를 맺은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씨앗을 심은 것이기도 하다.

주변의 격려와 칭찬 속에 스스로의 중간 점검에서 95점을 주고 싶다.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눔의 묘미와 기부의 즐거움을 같이 할 수 있음에 큰 점수를 주었고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에서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세상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닌 모두와 공유하는 것이다. 나눔과 기부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 중 하나로 우리가 서로에게 더 나은 세상을 선물하는 발판이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길이라 할 수 있다.

결실의 계절이 다시 찾아오면 한 번 더 점검의 시간을 갖고 농사도, 봉사도, 지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움직여 준 나를 스스로 칭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작은 씨앗을 다시 심었기 때문이다. 세상이 주는 많은 선물과 정성을 가득 받아 건강히 자라서 또 다른 행복의 씨앗이 되기를 희망한다.